


### 공동체 소식



**연중 제20주일**

주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8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 내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니다.

- 미사: 8/15 오전 10:00

※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께서 신앙의 힘으로 하늘로 오르심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 신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 임명식

- 신임 회장 및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위원 취임식: 오늘 교중미사 중.

※ 신임 평협위원회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총회의

- 일시: 8.21(주일), 교중미사 후.
- 대상: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 내용: 주일학교 운영방안

#### 8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8.27(토)

#### 본당 평협회

- 일시: 8.28(주일), 교중미사 후.

####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본당 나자렛관.

####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399 (259)	213	175	48 (205)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이원준 요한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찬 미카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차주	김명은 안젤라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8/7	67명	308불	1,050불
문석찬, 류기범, 김경철, 이우석 (총 4 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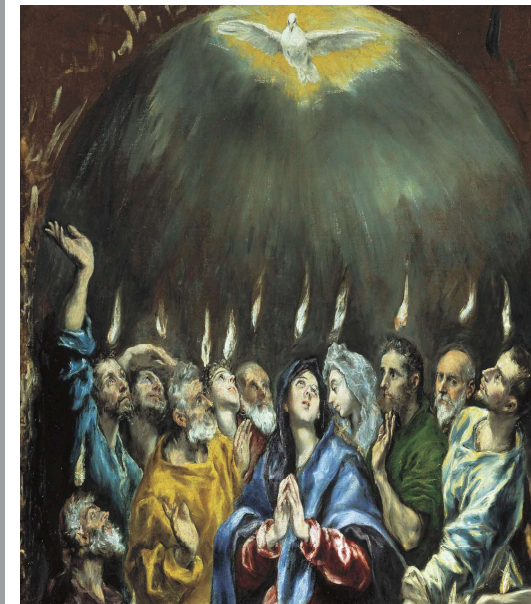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반대받는 표적인 아드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 비밀을 밝히십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진리와 은총을 거부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시대의 표징을 깨달아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 \*성화해설

#### 성령 강림<부분> (엘 그레코, 1596-1600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49).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알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참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8,4-6.8-10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예레 15,10).>



-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4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49-53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쉐 마

## 성모님 승천은 '희망'의 표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이 말씀은 1독서에서 봉독한 요한 묵시록 12장과 연결됩니다. 묵시 12장에는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하늘에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나 아이를 삼켜 버리기 위해 여인이 해산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고 용은 천사들에게 패퇴합니다. 묵시록에 따르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를 삼키려고 하던 용은 옛날 창세기의 뱀, 사탄입니다(묵시 12,9).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여인이 쓰고 있는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은 여인이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결국 묵시록 12장의 장면은 하느님께서 악한 세력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인의 이미지 안에서 성모님의 모습도 함께 발견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이미지와 성모님의 이미지가 묘하게 겹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은 성모님을 교회의 전형,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십자가 밑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성모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참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을 두고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고 되물으셨습니다(마태 12,46-50).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모님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말씀이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로 내어드려 모시게끔 합니다. 곧,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내어주십니다(요한 19,25-27).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모님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느님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음을 기뻐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성모 승천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성모승천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앞서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성모님과 관련된 모든 교리는 그리스도인, 곧 교회의 삶과 미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승천 축일도 단순히 성모님이 승천하셨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도 성모님처럼 승천하리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다지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모승천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충실히 걸어 가도록 합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모승천 교리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성인 말씀

**여행할 때 성체를 몸에 지니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지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 주춧돌

## 베드로 사도를 곤경에 처하게 한 여종

예수님은 대사제와 원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험악하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취조하는 사람들이 손찌검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대사제 관저의 마당에는 종들이 불을 피워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여종 한 명이 다가와 무어라 말을 걸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6,67-69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체포되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나가려고 하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6,70-72

베드로는 슬그머니 문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종 한 명이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와 한참 동안 얼굴을 뻗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소리로 “아무리 보아도 맞아요. 체포된 사람과 한 패거

리가 맞아요. 당신 분명히 예수와 함께 다닌 적이 있죠?”라며 베드로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큰소리로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어 밖에 나가 슬프게 울었습니까?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6,73-75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몸 붙여 살며 정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만을 위해 행동할 뿐입니다. 대사제 관저의 여종도 바로 권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 영역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에게는 동정심도, 측은한 마음도 없으며,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고통을 못 본체한다면 여종의 어리석은 삶을 재현하는 셈입니다. 대사제 관저의 여종 같은 이는 다른 아닌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같은 나무 다른 가지

같은 나무에 붙어 있다 해도 산 가지와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찬란한 봄을 맞으려면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산 가지에 힘을 넣어주어

찬란히 빛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같은 나무, 다른 가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루카 12,51)